

89. 고무제품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 유기용제 중독

성별 여 **나이** 53세 **직종** 고무제품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윤○○은 1994년부터 주사액의 병뚜껑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2006년 7월 A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의뢰되어 만성 후두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업의학과로 의뢰되어 만성 유기용제 중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윤○○은 1994년 2월 입사하여 병뚜껑 조립작업을 하였는데 2003년 6월부터 기존의 작업장소에서 인쇄실로 옮겨 작업을 하였고, 인쇄작업도 같이 이루어졌다.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인쇄작업시 잉크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2005년 3월경에 설치되었다. 인쇄공정에서 사용되었던 잉크, 경화제, 신너 등의 MSDS와 2004-2006년 D병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2006년 8월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작업환경평가에서 검출된 유기용제들은 각각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 초산에틸, 아세톤, n-초산부틸, TDI 등이었고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윤○○은 과거 병력, 음주력, 흡연력이 없었으며,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 인쇄실 내부 공간으로 옮겨 작업을 한 이후부터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받던 중 2005년 상기증상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겨 S병원에서 흉부방사선검사, 위내시경, 갑상선검사 등을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증상이 심해져 2006년 6월 사직하였다. 2006년 6월 Y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료하다 ‘발성장애’와 ‘목소리변화’로 2006년 7월 A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의뢰되어 만성 후두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직 후 1달간의 치료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현재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말을 많이 하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거나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상기 증상이 재발 및 악화된다고 한다.

4. 결론: 근로자 윤○○은

- ① 인후의 자극증상이 인쇄실로 옮겨 작업을 한 시점부터 발생되었는데, 만성적으로 노출된 복합유기용제에 의한 자극효과와 유사하고, 퇴직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에 의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 ② 잉크, 경화제, 신너 등에 함유된 유기용제 등은 인후의 자극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후두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③ 과거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기 전에는 노출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 윤○○의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